

## 참된 연극인의 자세 가르쳐 준 '고마운 책'

스타니슬라프스키의 《나의 예술인생》을 읽고

김석만 | 연출가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스타니슬라프스키는 리얼리즘 연극양식을 완성하고 연기술을 체계화한 세계연극계의 거장이다. 하지만 그의 연극세계와 연기론은 신비와 모호함의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나의 예술인생》은 76세의 나이로 공연을 앞두고 무대연습 도중 숨진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녹아 있는 자서전이자 “시시한 역할은 없다, 시시한 배우만이 있을 뿐이다”는 파격적인 연기론이 담겨 있는 문제적인 책이다.

인생에서 단 한번만이라도 무대 위에서 진실한 창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일은 얼마나 행복한가! 관객을 사로잡는 연기는 과연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가. 유토피아와 같은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배우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며 또 어떻게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자유자재로 이를 자신의 통제 안에 둘 것인가?

### 스타니슬라프스키의 자전적 연기론

연기는 덧없는 예술이다. 창조된 순간에 관객의 정서와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사라지고 만다. 감동의 기억밖에 남지 않는다. 더구나 배우에게 연기는 참으로 어려운 예술이다. 항상 영감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분야에 속하기 때문이다. 영감이 일어나야 작품을 하는 다른 예술가와는 처지가 다르다. 따라서 배우가 극중 역할에 접근하는 과정은 일정한 규칙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자신이 삶 속에서 체험한 구체적인 경험 속에 역할 창조의 실마리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를 다양하게 전개되는 주어진 상황에 적용하길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20세기 연기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스타니슬라프스키가 일생을 바쳤던 진실한 역할 창조과정의 기록을 재미와 감동으로 풀어낸 《나의 예술인생》(강량원, 이론편/520면/30,000원)은 한마디로 '고마운 책'이다.

스타니슬라프스키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살면서 소위 리얼리즘 연극양식을 완성한 연기술을 체계화한 사람이다. 이 인물의 삶과 가르침은 냉전체제를 경험한 문화권에서는 항상 일부 분만이 교조화돼 신비와 함께 모호함을 남겨뒀다. 소련의 구체제가 붕괴되고 그가 남긴 기록들이 모두 공개되면서 그 신비와 모호함의 베일이 벗겨졌다. 《나의 예술인생》은 스타니슬라프스키의 자서전이며 그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극장의 환상에 매료된 순간부터 76세의 나이로 공연을 앞두고 무대 연습 도중에 사망한, 배우이며 연출가이며 연기교사였던 스타니슬라프스키는 배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 남겨 놓았다. 그가 남긴 일화와 연극창조 과정에서 뱉어낸 말들은 내게 '말씀'이 됐다. 《나의 예술인생》은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된 배경과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해줘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

그가 네미로비치 단첸코와 함께 창단한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탄생 이야기는 아마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까. 1897년 6월 21일 오후 두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여덟시까지 장장 열여덟 시간에 걸쳐 나눈 이야기는, 아마 예술실천 강령을 대충 정리하고 기분에 들떠서 예술단체 활동을 했던 수많은 집단에게 가슴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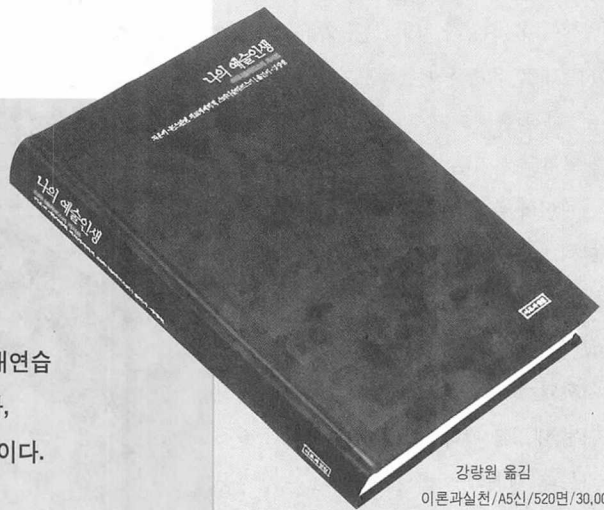
는 교훈마저 주고 있다.

### “배우는 미와 진실의 사제다”

연극이 덧없는 예술이기에 스타니슬라프스키가 연출한 작품이나 그에게 연기수업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없다. 그러나 《나의 예술인생》은 창작과정이 거쳐갔던 흔적을 분명하게 느끼게 해준다. 그가 지녔던 예술의 미학적 윤리는 격언과도 같은 몇몇 표현에 담겨 있다.

“예술 속에 있는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을 사랑하라.” “시시한 역할은 없다, 시시한 배우만이 있을 뿐이다.” “좋은 태도도 배우의 창조성의 한 부분이다. 만일 침을 뱉으려거든 극장에 들어오기 전에 뱉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연극이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예술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던 스타니슬라프스키는 타협이나 예의 없이 때로는 배우들을 무자비하게 훈련시켰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예술가들을 무지와 열치기, 모리배의 상태로부터 끌어내고, 배우는 아름다움과 진실의 사제라는 사실을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는 일로 생각했다.●



강량원 옮김  
이론편/520면/30,000원